



미주 예성 서남지방회가 제2회 정기 지방회를 열었다. 사진 가운데가 오병익 신임회장.

## 미주 예성 서남지방회 정기 지방회 열려

회장에 오병익 목사, 부회장에 박용덕 목사 선출

예수교미주성결교회(이하 미주 예성) 소속 미국서남지방회가 지난 13일 남가주벤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제2회 정기 지방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오병익 목사, 부회장에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장로 부회장에 김규진 장로(남가주벤엘교회)를 선출했다.

오병익 신임회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방회를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지방회 확장, 선교지회

간의 친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1부 예배 및 성찬식은 오병익 목사의 인도로 거행됐다. 김영일 목사가 요한복음 16장 20-24절을 본문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보상’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후 박용덕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가진 후 강양규 목사(남가주

서남약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열린 지방회 회의에서는 지방회장 김영일 목사의 진행으로 작년 사업보고와 함께 신임 회장단을 인준했다.

한편, 서남지방회는 캐나다 밴쿠버총회와 한국에서 열리는 안양총회에 대의원을 파송한다는 계획이며, 10월 15일(주일)에 열리는 웨슬리언 찬양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OMS 장학금 받던 신학생 OMS 국제사역 부총재 되다

선교사 및 이민목회자 출신 최춘호 목사

국제선교단체인 OMS(One Mission Society, 총재 밥 페더린)가 한국OM(Operation Mobilization)선교회 초대 대표를 역임한 최춘호 목사를 국제사역을 총괄하는 부총재로 선임했다.

1901년 시작된 OMS는 현재 6대주 40여 언어종족들 속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현지인 선교사만도 14,000여 명에 이른다. 전세계 30여 복음주의 교단 및 단체에서 파송된 사역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전도 △교회개혁 배가운동 △지도자 신학훈련 및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OMS 국제본부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 31초마다 전 세계 선교지에서 OMS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있으며 매년 6천여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현재 OMS를 통해 시작된 전 세계 신학교는 공식적으로 30여 개에 이른다. 1911년 설립된 서울신학대학교도 OMS가 세운 대표적인 신학교 중 하나이다.

한편, 이번에 부총재로 선임된 최춘호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OMS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1981년 국제선교단체인 OM선교회 선교사로 파송돼 로고스선교사에서 전도부장으로 사역했으며 1989년에는 한국OM 대표로 임명돼 故 옥한흠 목사와 함께 한국OM을 개척했다.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 있는 풀러선교대학원에서 리더십을 전공했고, 선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미주한인OM선교



최춘호 목사

회(OM-KAM)를 개척해 한인 디아스포라 차세대 사역을 시작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 2년간은 돌로 슌 선교사의 부단장을 역임했다.

그 후 최 목사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북미주 선교선 본부를 시작해 아시아 대표로 사역했으며 2001년, 파사디나에 소재한 로고스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면서 미주성결교단의 차세대 사역자 위원장과 미주성결교단과 OMS 조정관으로 사역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를 위해 태국 북부 골든트라이앵글 치앙라이에 소재한 메콩선교회(대표 이용원 목사) 비전센터장으로 사역하던 중, 이번에 OMS 부총재로 부름받게 된 것.

최춘호 목사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국제선교단체에서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선교지도자들이 세계선교의 국제화를 이루어 보다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적극적인 선교협력”을 요청했다.

김진영 기자

## 엄마, 진짜 내 마음 알아요?

한인기독교상담소 9월 한달간 감정코칭 세미나

한인기독교상담소(소장 김화자)가 9월 한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엄마, 진짜 내 마음 알아요? 감정코칭’이라는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참가자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 자녀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부터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까지 누구라도 참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등록비는 25달러이며 세미나 장소는 월드미션대학교 OC캠퍼스(7342 Orangethorpe Ave. #A103, Buena Park, CA 90621)이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9월 7일에는 아이의 행복 시작, 감정 알아주기, 14일에는 아이의 마음을 여는 감정코칭 대화법, 21일에는 아이와 교감하는 사랑의 기술 5단계, 28일에는 아이의 발달에 따른 맞춤형 코칭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각각 진행된다. 문의) 657-529-1133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Oxford Ave.  
Pico Blvd.  
Serrano Ave.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5-318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웍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2017년 가을학기부터  
B.A. 과정을 위한  
토요일 전일제  
수업 실시!  
(토요일 하루에  
4과목)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2017년 가을학기신(편)입생 모집

"모든 학위 과정을 100% 온라인강의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소지 B.A.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자금 보조(Title M) 가능.  
(보조는 자격 요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졸업후 상환하지 않음.)

**ESL 과정**

- 친절하고 우수한 강사들이 학생들의 언어 레벨에 따라 지도하는 맞춤형 언어교육
-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최적화된 언어교육 과정

**학사(B.A.) & 교역학석사(M.Div.) 과정**

- 교수의 95% 이상이 미국의 우수한(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
- 다문화, 다인종 공간에 맞는 신학교육
- 경건과 학문에 기초한 선교지향적 신학교육

**크리스천상담심리석사(M.A.C.C.P.) 과정**

- 이론과 임상을 겸비한 전원 Ph.D. 학위 소지 교수진
- 성경과 복음적인 신학과 심리학의 조화로운 통합적 상담심리
- 현대에 맞는 크리스천 상담심리 이론의 숙지와 실제적인 활용

**특전**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학교
- 인터넷만 있으면 원격강의로 전 세계 어디서나 학위과정 이수
- 교단 산하 북미주, 중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470여 개 교회와 선교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 전 세계 21개 지역 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장통합(PC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ESL 문의 및 상담: 박동식 교수(dsparm@ptsa.edu) www.facebook.com/SLCS.EPT

www.ptsa.edu | 1-20 발행 | 정회원 ats 정회원 후보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유영기 목사 |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사우스베이목사회 8월 월례회가 열렸다.

# 사우스베이목사회 8월 월례회 개최

## “영혼구원의 사명에 힘 모으자” 다짐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윤목 목사) 8월 월례기도회가 9일 아침 주립세운교회(박성규 목사)에서 열렸다.

윤목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서 장경일 목사(원패밀리교회)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사우스베이 지역 목사님이 협력할 때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면서 “말씀과 찬양, 기도가 교회마다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구원의 사명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사우스베이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미국의 대통령과 세계선교를 위해 각각 기도하고, 안병권 목사의 광고와 박성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사우스베이목사회는 9월 24일(주일) 오후 5시 30분에 사우스베이 지역 연합찬양제를 연다. 또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주최하는 사우스베이 어머니학교를 10월 23일(월), 24일(화), 30일(월), 31일(화)에 원패밀리교회(19208 S. Vermont Ave. Gardena, CA 90248)에서 개최한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강순영 목사(JAMA 대표)는 10월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및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사우스베이 지역 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또 강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교회마다 성경읽기 운동이 전개되고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길 바란다. 남가주 지역 교회와 교계가 하나되어 미국과 한국의 영적 대부흥을 주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자”고 했다.

이인규 기자

# “같은 말, 마음, 뜻, 비전으로 달려갈 것”

## 남가주벤엘교회 임직예배 드려

남가주벤엘교회(담임 오병의 목사)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미주 여성 서남지방회 임원과 축하객들이 분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13일(주일) 오후 4시에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서 ▲안수집사 김낙훈, 이일호, 임춘택, 조한진 ▲권사 김선옥, 박명란, 박명숙, 박소연, 원혜경, 조남희, 진혜원 씨가 임직을 받았다.

오병의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웨키나성가대의 찬양과 강양규 목사(남가주새언약교회)의 기도, 문장혁 장로(서남지방회 부회장)의 성경봉독 후 김영일 목사(서남지방회 회장)가 눅10장 38-42절을 본문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영일 목사는 “교회 안에 마르다의 일, 마리아의 일을 구분하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며 “무슨 일이든 한 가지를 택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족하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은 마르다의 일과 마리아의 일



남가주벤엘교회에서 임직식이 거행됐다.

을 구분하기 위해 재판장으로 오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오병의 목사의 집례로 임직자 소개 및 서약, 안수기도, 안수례, 공포를 통해서 임직했고, 임직자 가족과 축하객들이 앞으로 나와 서로가 축복해 주는 은혜로운 모습도 있었다.

권면을 전한 박용덕 목사(미주 여성 증경총회장)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 목회자의 자랑,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 되라”고 전했다. 신익현 목사(서

남지방회 회계)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아름다운 세계가 임직자들을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임직자 대표로 답사를 전한 김낙훈 안수집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임직하면서 목회자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말했다.

김규진 장로의 광고 후에 오병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인규 기자



GMU가 최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LA 확장 클래스를 열었다. GMU의 방송 생중계 및 녹화 시스템

# OC에서 열리는 수업을 LA에서 동시에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LA 클래스 시작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가 LA에 확장 클래스(Extension Class)를 열며 실시간 생중계 온라인 강의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보통 온라인 강의라고 하면 녹화돼 있는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시청한 후에 게시판 토론과 질문이나 숙제 제출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데 이 학교는 오렌지카운티 본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실시간으로 LA 클래스룸으로 송출해 교수와 학생이 얼굴을 맞댄 것처럼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은혜한인교회 캠퍼스 내에 있는 그레이스미션대는 예장 국제총회 교단 신학교이지만 초교과, 다민족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ABHE, TRACS, ATS 등 신학관련 3대 인가기관의 인가를 모두 갖추고 있다.

신학사(BA), 기독교교육학 석사(MACE), 선교학 석사(MAICS), 목회학 석사(M.Div.) 및 선교학 박사(D.Miss.) 등 5개 학위 과정을 제공하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유학생은 I-20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모든 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한인과 타민족을 위한 영어 트랙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6명의 풀타임 교수, 30여 명의 파트타임 교수가 300여 명의 재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유학생은 100여 명이나 된다.

최근 그레이스미션대는 오렌지카운티까지 오기 힘든 LA와 벨리 학생들을 위해 확장 클래스를 열었다. 위치는 한인타운 원서길 3020 Wilshire Blvd., #170 Los Angeles CA 90010이며 주차장도 인근 건물에 확보해 놓았다. LA 확장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I-20 유지

가 가능하다. LA 확장 클래스의 경우, 오렌지카운티와 달리 한국어 과정만 개설되며 수요일 오전 오후에 강의를 하고 월, 화요일에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

그동안 이 학교는 모든 강의를 녹화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학생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래서 타주는 물론 한국, 중국,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LA 확장 클래스에서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다. 일단 최규남 총장의 모세 오경 강의와 김현완 학장의 조직신학 강의를 이런 형태로 개설한다.

학교 측은 미국 주류신학교에서도 이런 형태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시도한 적이 거의 없기에 여러 인가 기관들이 이번 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이 오프라인 상의 수업이나 기존의 온라인 수업만큼의 품질을 갖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그레이스미션대는 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위해 지난 1년간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IT 관련 전문가이면서 이 학교에서 교회행정 교수를 맡고 있는 제임스 구 행정처장은 “현재 한인신학교는 물론 미국 주류신학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인신학교들이 도덕성과 긍지를 회복하고 서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학교는 자신들이 개발한 다양한 학사 행정 시스템들을 한인 신학교들에게 컨설팅 및 제공하며 섬겨 왔다.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m.edu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보는 테필린(Tefillin) 세미나

## “약속의 땅을 찾아 갑시다”

한국교회의 미래 대안을 형성하고 있는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 2세와 3세의 차세대 양육원리와 비전을 신명기를 통해 보게됩니다.

### 특징

1. 히브리식 사고(3통 사고)로 쉽게 성경 원전해석
2. 히브리식 체현(5특 체현)으로 성경 원전해석
3. 미주 최초로 테필린 세미나를 통해 수천년간 내려온 유대인 교육에 숨겨진 비밀을 배움

- 강사 : 강신권 박사(토브성경원전연구소 원장, 테필린 국제강사)
- 일시 : 2017년 9월 4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교일보 컨퍼런스룸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교재비 : \$20
- 인원 : 20명 (\* 자리가 한정되어 있음으로 예약 바랍니다. )



강사: 강신권 박사 Dr. Paul Kang

▪ 주관: 토브성경원전 연구소(Tov Bible Institute) ▪ 문의: (213)739-0403, (213)434-1170





남가주가스펠교회 이원준 목사가 담임으로 취임했다.

# 남가주가스펠교회 이원준 담임목사 취임

## 한인 1세와 2세, 다민족 함께 하는 교회 향해

남가주가스펠침례교회의 새 담임 이원준 목사가 취임했다. 13일(주일) 오후 4시에 드린 취임감사예배에서 이원준 목사는 한인 1세와 2세, 다민족이 함께 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비전을 선언했다. 예배는 이전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김상범 안수집사가 대표기도 하고 게이트웨이신학교의 제프 오지 총장이 설교했다. 그는 "목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목사의 직무는 교회를 이끌고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라 설명한 후 성도들에게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미래의 변화를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주만 안수집사가 이원준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이날 예배에서 축사는 주님세운 교회의 박성규 목사가 맡았다. 이원준 목사는 주님세운교회 EM을 맡아 8년간 목회한 후 가스펠교회 담임으로 청빙 받았다. 박 목사는 이목사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며 인품이 좋고 선교적, 복음적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보면 알게 되는데 이 목사는 정말 사심 없이 주님을 위해 목회했던 사람"이라고 극찬했다. 이원준 목사는 "박성규 목사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축사해 주셔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경옥 목사는 격려사를 전했다. 그는 "언제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길 바란다. 전도와 선교조차도 사역의 목적이 되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결과물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격려했다. 한편, 이 예배에서는 한국 남서울 비전교회(최요한 목사)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D-Kids가 특별방문해 축하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이 교회는 1979년 김상범 안수집사와 김경옥 목사 자택에서 8명이 성경공부를 하면서 시작돼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중국과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2005년 골든게이트신학교(현재 게이트웨이신학교) 산하 평신도 지도자 개발원을 교회 내에 열기도 했다. 1999년에 현 가든그로브 예배당으로 이전했으며 2008년에 건물을 증축했다. 김준형 기자

# 미주성시화 주최로 대북 구국기도회 열려

14일(월) 오후 5시 나성중앙교회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구국기도회 및 미국의 대외 정책 세미나"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드린 경건회에서는 한기형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송정명 목사(대표회장)

가 환영 인사를 전하고 백은학 장로(LA홀리클럽회장)가 대표기도했다. 세미나는 이성도 목사(나성중앙교회)의 사회로 시작돼 김경준 박사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김헬렌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장)가 조국을 위해, 양수영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LA동지방감리사)가 북한을 위해, 샘 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장)가 미국을 위해, 최대영 장로(증경이사장)가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다.



LA 시포니에타 유스 오케스트라가 8.15 경축음악회에서 연주하고 있다.

# 광복 기념 경축음악회 열려

## 남가주교협 - LA한인회 공동으로

광복 제72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음악회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로스앤젤레스한인회 공동주관으로 8월 12일(토) 오후 4시 마가교회에서 열렸다. 경축음악회는 김재울 목사(남가주교협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홍성관 목사(남가주교협 총무)의 사회로 LA 시포니에타 유스 오케스트라, 코랄레움선교합창단, LA여성선교합창단, 남가주이화여고동창합창단, 조이풀미션코러스, 남가주에루살렘성가단, 소프라노 황혜경, 소프라노 조미자, 테너 오위영, 바리톤 채홍석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음악회는 모든 참석자가 '애국의 노래'와 '만유의 하나님'을 합창함으로 끝났다. 음악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김종용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심진구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기도하고 백지영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봉독했다. 이어 강부웅 목사(남가주교협 상임이사)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병국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헌금기도 했으며 안덕원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가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났다.



엘바인 온누리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해 기쁨과 감사를 이웃들과 나누었다.

# 엘바인 온누리교회 특별한 창립 기념 교회 이웃 350명에게 식사 대접

엘바인 온누리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해 교회 주변 이웃들을 위한 푸드트럭데이 행사를 4일 열었다. 14년간 교회와 함께 했던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점심 시간에 다양한 푸드트럭을 교회로 불러와 이웃들이 마음껏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행사에는 교회 주변 빌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려 350여 명이나 방문했고 620인 분의 음식이 나갔다. 교회는 즐거운 식사를 위해 교회 로비를 카페테리아로 꾸미고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준비한 음료수와 커피를 서빙했다.

이런에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될까?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 3-7-21 재능캠프

엘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 목회자 아버지학교에 초대합니다

# 목회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과 교회가 산다!

제13기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나성서부장로교회(담임 서건오 목사)에서 개설됩니다. 사모님, 성도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을 저희 목회자 아버지학교에 보내주세요. 목회자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13기(6209)차

**일시** | 8월 21일(월) 오후 5:00~오후 9:00  
8월 22일(화) 오전 9:00~오후 9:00  
8월 27일(주) 오후 5:00~오후 9:00

**장소** | 나성서부장로교회(담임 서건오 목사)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등록** | 1인당 참가비 \$120 (교재 및 저녁식사 제공)

**도와주신 분:** 권준 목사(미주아버지학교 지도목사)\_시애틀형제교회, 김경렬 목사\_산타모니카한인교회, 김근수 목사\_One Hope Church, 김영찬 목사\_효사랑선교회, 김인구 목사\_예수사랑교회, 박세현 목사\_예수로교회, 성요셉 목사\_소망장로교회, 이상훈 목사\_사우스베이 주비전교회, 정종섭 목사\_새영교회, P테드황 목사\_메구미교회

문의 :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T.(213)382-5454, 김인구목사(준비 위원장) T.(213)700-4689, 성요셉목사(13기 진행) T.(818)331-2481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30>

### 볼리비아 선교사의 마지막 발걸음(1)

필자는 지난 주간 중에 방문하신 볼리비아 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황희수, 황우신 선교사다. 40대 중반에 볼리비아를 향했던 그들이 19년이 지나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다. 지난 19년간 고산, 정글, 농촌, 도시빈민가 등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신학교를 세우고 수십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치기공, 농업, 신학 등의 인재양성 학교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그들은 코차밤바 해발 3500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사역한 결과 풍토병, 산소부족으로 오는 심장병, 호흡병 등 수많은 육체적 고비와 영적 전쟁을 치르며 그들에게 맡겨진 선교사명을 이루어 내었다. 필자는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 개척선교사들로서 그들이 이루어낸 영적, 물리적 선교 성과는 가히 기적에 가깝다고 본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어, 여생을 그 이루어낸 사역지에서 비교적 편히 누리며 지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두고 두고 성공한 선교사 사례의 대표적 모델이 되어질 분들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들에게서 놀라운 소식과 전개될 일들에 대하여 들으며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 2015년 2월 예기치 않은 사고가 그들의 미래의 삶을 바꾸었다.

비가 오는 어느날 밀립 지역 선교지를 향해 가다가 마주 달려오는 대형 공사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차 앞이 운전석 앞까지 구겨질 정도로 큰 충돌로 인해 황희수 선교사도 상처를 입었으나 부인 황우신 선교사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다. 온몸이 피었고 가슴과 얼굴에 상처가 깊었다. 충격에 혀가 잘려 나가는 중상을 입었다.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4시간

떨어진 병원으로 후송되어 허복합수술 등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가 있었고 1년이 지난 때까지 그 후유증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주었다. 필자는 그들에게 “왜 총화에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왜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하면서도 그들의 고립된 외로움을 느꼈고 어디에도 그런 요청을 할 수 없는 선교사의 심정을 헤아리며 너무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들은 지나온 19년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마지막에 교통사고로 인해 죽을 고비를 또 한 번 넘기며 서러워 남몰래 눈물도 흘렸다. 이전 기력이 없었다. 더 이상 사역을 해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두 부부가 “이제 그만 하자, 캐나다로 돌아가서 여생을 살자”고 정했다 한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19년간 일궈온 그 사역지의 모든 것을 한국에서 파송한 후임선교사에게 그대로 인계한 후, 말 그대로 두 손탁탁 털고 무소유로 사역지에서 은퇴했다. 오랫동안 그들을 아는 동역자들은 그 부부가 그럴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소식에 모두가 감탄하며 놀랐다.

그들은 사임한 후 볼리비아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간 가보고 싶었던 사역지가 있었다. 그들이 선교지에 와서 처음 세웠던 Huasalle 교회였다.

(다음 호에 계속)



볼리비아 코차밤바 사역을 마친 황 선교사 부부

## “뉴저지 필그림교회 어디로...”

### 교단 탈퇴 결정 직후 노회는 당회 해산 결정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지난 13일 공동의회를 통해 미국장로교(PCUSA) 탈퇴를 98.1%의 찬성으로 결정한 가운데 다음날인 14일 필그림교회가 소속된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이상철 목사)가 임시노회를 통해 필그림교회에 대한 행정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춘길 목사의 설교권 금지와 필그림교회 당회 해산을 결정했다.

필그림교회는 그동안 교단 탈퇴 과정에서 동부한미노회와의 의견차로 인해 순탄치 않은 과정을 보여왔으나 양측이 하루를 사이에 두고 ‘교단 탈퇴’와 ‘당회 해산’이라는 양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그림교회는 지난 4년간 PCUSA가 내놓은 ‘은혜로운 결별정책’에 따라 노회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공동의회에서의 교단 탈퇴 결정은 그간 노회를 대상으로 대화를 진행해 왔던 ‘은혜로운 결별정책’에는 더 협조가 어렵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필그림교회는 13일 공동의회에서 PCUSA 탈퇴의 건을 비롯한 ECO 교단 가입과 당회원의 임기 등 총 5가지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교단 탈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1008표(98.1%), 반대 16표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또 ECO 교단 가입에 대해서는 찬성 988표, 반대 29표로 대안적 교단 가입도 압도적인



미국장로교에 속한 필그림교회가 교단 탈퇴 문제로 노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여론을 보였다. 이 밖에도 교단 탈퇴와 관련,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나머지 항목들도 모두 95%~96%의 지지로 통과됐다.

동부한미노회는 필그림교회 공동의회 다음날인 14일 오후 7시 뉴저지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우종현 목사)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필그림교회에 대한 행정전권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필그림교회 당회 및 양춘길 담임목사의 행정권한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회는 “당회가 소유하고 있던 필그림교회에 대한 모든 관할권은 행정전권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동부한미노회는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에 대해 “관할권을 파기했기에 당일부로 미국장로교 목사회원이 아니”라며 이들

에 대해 “필그림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를 포함한 일체의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CO 교단 가입에 관해서도 동부한미노회는 “승인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으므로 필그림교회는 여전히 노회에 존속한다”고 밝혔다. 또 동부한미노회는 행정전권위원회 결성 즉시 필그림교회 당회를 해산한다고 밝혔으며 이사회를 포함,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임시 당회장을 겸임한다고 발표했다.

동부한미노회는 필그림교회 행정전권위원회를 문정선 목사를 위원장으로, 허봉기 목사, 박상천 목사, 장경해 목사, 이광호 장로, 장신옥 장로, 이문경 장로 등 7명으로 구성했으며 당면적으로 노회장 이상철 목사와 사무총장 김현준 목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 캐나다 도착 임현수 목사, 큰빛교회서 주일예배

지난 13일 캐나다 큰빛교회 주일예배 강단에 오른 임현수 목사는 2년 6개월 9일 만에 “반갑습니다”로 성도들에게 첫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석방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해준 세계 성도들과 끊임없이 구명 운동에 힘써 준 캐나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임 목사의 건강을 우려했지만 임현수 목사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와 표정도 예전과 다름없이 힘이 실려있었다.

임 목사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나오게 됐음을 믿는다”며 “역류 중 공포와 두려움, 많은 어려움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고백했다.

역류 기간 독방에만 갇혀있던 임 목사는 북한 역류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혼자 있는 시간”으로 꼽았다.

임 목사는 “종신형을 받고부터는 외로움과의 투쟁이었다”며 “2757

번을 혼자 밥을 먹었고 특히 주일예배를 혼자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긴 시간이었지만, 주님과 의 시간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노동을 하면서도 기도를 이어갔다”며 1년 동안 성경을 5번을 읽으면서 오전 7시에 찬송으로 주일예배를 시작해 저녁 8시에야 예배가 끝날 정도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역류 기간 찬송과 성경 암송으로 은혜 누리

임 목사는 모든 정보가 차단되고,

어떤 기록도 남길 수 없는 역류 기간 동안 찬송과 성경 암송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경을 읽고 구절을 반복해서 외우다 보니 성경을 주제별로 700개 정도로 나눠서 강의할 수 있게 정리됐다”며 “고된 노동의 시간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과 회개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임 목사는 “역류 기간 앞으로 젊은이들과 청년 지도자 교육 등, 세계 교회들을 깨우면서 일할 비전을 발견했다”며 “남은 인생,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브라이언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naver.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미 주 감 리 교 신 학 대 학 교

### 2017년 가을학기 (8월 21일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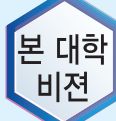
본대학  
특징

#### 미국내 인가 신학교

1.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BPPE: 거주사립학교 교육국) 학위과정 승인(B.Th, M.Th, M.Div, ESL)
  2. 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ABHE: 기독교 대학 협회) 회원
- 본 대학의 목회학 석사(M.Div.)와 신학석사(M.Th.) 졸업생은 소정의 과정 거쳐 감리교단 목사안수
  - 본 대학은 교단 지원으로 모든 학생에게 50%~100%를 장학금으로 지급
  - 다양한 장학제도(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문의)
  - 현장지향적 교육(현장 중심의 실천적 신학/선교지향적 신학교육)
  - 열린 교육 (복음주의적 신학 / 전 세계 어디서나 수강 가능, 온라인 교육)

신학과  
편입생 환영

과정	학위	입학조건	학점
학사	신학사(B.Th.)	고교졸업자, 대학편입생	123
석사	신학석사(M.Th.)	신학대졸업자	48
	목회학석사(M.Div.)	일반대졸업자	90



주님이 부르시면 땅 끝 어디라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전도사, 선교사, 목사, 채플린(원목, 교목, 군목, 사목)양성



소정 과정 수료후  
미주사치연회(KMCA) 목사 안수



입학원서(홈페이지 내려받기)  
추천서 2통(담임목사 외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e-file 명함판사진(6개월이내)  
신앙고백서 1통



원서접수 2017년 8월 15일 까지 (가을학기)  
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후 15일내 통지  
접수처 : 본교 사무실  
E-mail: mtsa1996@gmail.com

- 문의 : Tel (213) 386-0080, 714-515-3668  
E-mail: mtsa1996@gmail.com
- 주소 : 905 S. Euclid St, Suite 212, Fullerton CA 92832
- 홈페이지: www.mtsamerica.org

이사장 : 전명구 감독회장      총장 : 임승호 목사





NOBTS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NOBTS, 목회 위한 수준높은 신학 한국어로 제공

## 7일 들루스 캠퍼서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뉴올리언즈침례신학대학교(NOBS) 한국어신학과(KTI) 들루스 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2017-2018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7일(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들루스침례교회(FBCD)에서 진행됐다. KTI 디렉터인 최봉수 교수의 지도로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교에 대한 소개와 신학과정의 목적과 방향, 구체적인 학과과정과 유의점 등이 자세히 설명됐다.

“결국은 목회다”라고 강조한 최봉수 교수는 “신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언제나 가장 우선은 이 모든 과정이 ‘목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왜 여기 있는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란다. 또한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채플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로 도전 받고, 학우들과 교제를 통해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오리엔테이션은 NOBTS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 ‘Doctrinal Integrity(신학적 순

수성)’, ‘Spiritual Vitality(살아있는 영성)’, ‘Mission Focus(영혼 구원)’, ‘Characteristic Excellence(인성)’, ‘Servant Leadership(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으며, 2017-2018학년도에는 다섯 번째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강신청 시 유의점, 장학금 혜택, 출석과 지각 등 실질적인 수업과 학교생활에 관한 설명,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됐다.

남침례회(SBC) 산하 6대 신학대학 가운데 하나인 NOBTS는 뉴올리언스에 본교를 두고 마리에타에 ‘허브 캠퍼스’를 열어 동남부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통한 참된 목회자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한어권 학생들을 위해 시작된 한국어과정 KTI(Korean Theological Institute)에서는 본교와 동일한 수업이 한국어로 통역되거나, 검증된 한어권 교수들의 수업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들루스 캠퍼스에서 제공된다. 이외에도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저명한 교수진들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윤수영 기자



시애틀 형제교회 故 최용길 원로목사 입관예배에서 설교하던 심관식 목사

# 시애틀 형제교회 2대 담임 심관식 목사 별세

시애틀 형제교회 2대 담임을 역임한 심관식 목사가 현지시간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 오리건주 포틀랜드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5세.

故 심관식 목사는 시애틀 기독교 연합회장에 이어 2000년에는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협의회(NKPC)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은퇴 후에는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옮겨, 신앙 칼럼 등을 통해 이민 목회와 교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왔다.

송실대학교, 장신대학원, 경희대학원을 졸업한 고인은 196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20년간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온 후 네바다주 리노교회에서 1981년

부터 1985년까지 목회했다.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14년 등 40년 동안 목회를 이어갔다. 고인은 은퇴 후에도 오리건 지역 한인 기독교회 연합회 활동과 더불어 지역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사역을 해 왔다.

고인은 생전 <열린 하늘을 본 사람> <외치는 소리> <바람은 불어도>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유가족으로는 심경란 사모와 장남 형일, 차남 형원 씨, 딸 형미 씨 등 2남 1녀의 자녀와 6명의 손주를 뒀다.

장례식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포틀랜드 영락교회에서 권준 목사의 집례로 열렸다.

브라이언 김 기자

# 태어난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천상의 소리’ 월드비전 합창단 공연이 지난 6일(주일) 애틀랜타 중앙교회와 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를 돕기 위해 환경직 목사와 밥 피어스 선교사가 창립한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을 통해 1960년 설립된 합창단이다. 1961년 1차 해외연주를 시작으로 미국, 독일, 핀란드 전 세계 55개국 720여 도시에서 2천여 회 연주를 한 바 있다. 이들의 연주회는 아름다운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국제평화 사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맑고 투명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하모니로 ‘천상의 목소리’라는 세계 최정상급의

평가를 받은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은 이번 미주 콘서트 투어 공연을 통해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과 삶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천상의 화음으로 전달해 참석한 청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공연 중간, 후원요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에 합창단원 박하경 양은 “세상에는 태어난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을 알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며 “우리들의 조그만 정성과 도움이 살아가기조차 힘든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영 기자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7와 비몬트 코너 주중사택-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b>김기섭 담임목사</b> www.LAsarang.com</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사를 배워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b>연제선 담임목사</b></p> <p><b>LA 온하늘교회</b></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장태원 담임목사</b></p> <p><b>LA세계선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b>한천영 담임목사</b></p> <p><b>갈릴리선교회</b>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b>강진웅 담임목사</b></p> <p><b>갈보리믿음교회</b> 피난처 피사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b>박형진 담임목사</b></p> <p><b>나성동산교회</b>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교회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회 오전 11:00-오후 6:00</p> <p><b>서건오 담임목사</b></p> <p><b>나성서부교회</b>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담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박현성 담임목사</b></p> <p><b>나성열린문교회</b>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모 오전 11:00</p> <p><b>김문수 담임목사</b></p> <p><b>나성제일교회</b>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b>정우성 담임목사</b></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모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찬양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b>김경렬 담임목사</b></p> <p><b>산타모니카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p> <p><b>조인수 담임목사</b></p> <p><b>씨니사이드교회</b>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함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음인 모임 오전 11:00</p> <p><b>김영구 담임목사</b></p> <p><b>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b>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b>김요섭 담임목사</b></p> <p><b>열매교회</b> 전도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009 C. (213)215-8523</p>
<p>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p> <p><b>김중호 담임목사</b></p> <p><b>예향선교회</b>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eew@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결혼예배) (스페셜) 오전 11:00</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믿음, 마음, 꿈, 열매</p> <p>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b>류종길 담임목사</b></p> <p><b>임마누엘선교회</b>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청운교회</b> 선교에 초몰스 친 초 정신의 초를, 바른교회관의 초를</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모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모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b>민중기 담임목사</b></p> <p><b>충현선교회</b> 불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549-9191 / F. (818)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b>박부환 담임목사</b></p> <p><b>한마음제자교회</b>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강지영 담임목사</b></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사탄의권국교회 토요일 오전 9:30 수요성령모임: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저녁 8:00</p> <p><b>강장규 담임목사</b></p> <p><b>남가주 새언약교회</b>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p> <p>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b>대표 주해홍 목사</b> <b>오늘 성경 읽으셨나요?</b></p> <p><b>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b>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성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인물을 새롭게 하는 신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조종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공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공감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화)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목요일예배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매일 아침 7시, 토/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2:00, 유초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전 9:30, 2부예배(EM)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어린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새기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강산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일성경대림회 오후 7:20, 금요일성경대림회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비의 사랑이 흘러 갈라너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윤 목**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 715-9902

파사데나, 라크렌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아침 청년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밖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30, 주일 어린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한기연으로 통합한 한교연과 교단장회의 관계자들

가칭 '한기연' 창립 잠정 4인 공동회장 체제 한기총과도 통합 추진하기로

(가칭)한국기독교교연합회(한기연)가 출범 후 당분간 김신규(예장 합동 총회장)·이성희(예장 통합 총회장)·전명구(기감 감독회장)·정서영(한교연 대표회장, 이상 가나다 순) 목사의 '4인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최근 별도로 모임을 갖고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기연 창립총회를 드리로 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창립 이

후 제1회 총회는 오는 12월 첫째 주 갖기로 했다. 앞서 양측이 합의한 주요 통합안은 △7.7 정관을 기본으로 하되, (통합 후 5년 간은) 1천 교회 이상 교단장으로 구성된 상임회장단을 구성해 대표를 추대한다 △한교연 법인을 사용한다 △통합 후 단체 이름은 가칭 한국기독교교연합회(한기연)로 한다 △한기총은 정상화 되면 통합을 추진한다 등이다.

김진영 기자



이찬수 목사

이찬수 목사가 수평이동 막는 이유

“부익부 빈익빈” 부작용 때문... 최선 아니나 차선

대형교회인 분당우리교회는 익히 알려진 대로 기존 신자는 등록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12년 10월 7일 수평이동을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교회 담임인 이찬수 목사가 그 취지와 이유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분당우리교회 한 교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 때문이었다. 이 교인은 분당우리교회 근처에 사는 자신의 처남이 분당우리교회 등록을 원했지만 기존 교인은 안 된다는 말에 나가지 못했다며 “사실 (이찬수) 목사님의 기존 교인을 등록시키지 않는다는 신념에 하나님을 위하여 애를 쓰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처남의 일이 되니 내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다.

죽는다는 문제와 연결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찬수 목사는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은 분명히 ‘최선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것 때문에 아쉬움을 갖는 분이 많으실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더 큰 부작용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잘 알기에 ‘차선’으로 선택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서 “대형교회 위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작은 교회들은 교회 유지조차도 어려운 상태를 방지하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 목사는 “그리고 기존 신자로서 우리교회에 등록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크겠지만, 그것이 그 영혼이 죽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땅에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교회들을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은 많은 좋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제4회 칼 귀츨라프의 날 행사 열려

한국 개신교 선교 185주년 기념 제4회 칼 귀츨라프의 날 대회(대회장 오현기 통일교회 목사)가 7월 24일과 25일 충남 보령시 오전면 고대도에서 열렸다. 칼 귀츨라프 선교기념 신학과 세계관 학회, (사)칼귀츨라프 선교기념회, 고대도 마을회, 대구 동일교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2014년부터 매년 학술 심포지엄, 기념 야외행사, 주기도문 사경회로 진행했다. 특히 주기도문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기도공동체(GPS, Global Prayer Society) 대표인 김석원 목사는 4년째 사경회 주 강사로 초청됐다. 김 목사는 “주기도문 기도는 근본적인 기도이고 모든 삶의 근본을 제공하는 지침서와 같다”며 “주기도문의 생활화, 주기도의 의식화에 대한 교육과 반복적인 영적 경건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365 기도운동을 소개하고 “한국교회가 주기도문 말씀기도운동으로 돌아가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함께할 것”으로 확신했다.

국제기도공동체는 지난 1월 주기도문 소책자를 발행해 교회, 선교단체, 소그룹 모임, 군인, 병원 등에 보급하고 있다. 소책자는 한글, 영어판이 완성됐고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총 100개 이상 언어로 번역해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제4회 칼 귀츨라프의 날 대회 첫날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실비아 브레즐(에어프루트대학), 김태형 목사(동일 프 로이데 IT 선교연구소 소장)가 발표했으며, ‘한 여름 밤의 빛의 축제’에서는 테너 조태진, 바리톤 안세환, CCM 가수 김승희, 동일프로이데 아카데미가 출연한 음악회, 김상식 목사의 샌드아트, 영화 상영 및 강진구 교수(고신대)의 해설이 있었다.





카라치 전도집회에 모인 수많은 무슬림들 ©CBN 뉴스

# 파키스탄 무슬림 대상 대규모 전도집회 심장부인 카라치에 1백만여 명 운집

근본주의 이슬람의 성향이 강한 파키스탄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특히 반가운 이유는 파키스탄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85세의 선교사인 마릴린 히키는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난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 하루 모임에 1백만 명이 모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는 실제로 1백만여 명이 동원됐다. 파키스탄의 심장부인 카라치는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이나 이슬람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고소당하는 지역이다.

마릴린 히키는 “많은 사람들이 시편 139편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했다.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지어질 존재’라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전했다.

히키 선교사는 현재까지 수 년 동안 전도 집회를 열면서 헌신적인 무슬림들이 어떻게 기독교 집회에 오게 되고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었다.

“이슬람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꾸란에 나타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주가 아니라, 선지자이자 치료자이다. 그래서 치료와 관련된 예수 행사를 마련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와서 치유를 받으라’고 알리면, 치유받길 원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무슬림들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이고 나서 그녀가 전해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온전한 복음이었다.

그녀는 “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살아났는지 전하고, 만약 당신이 회개하고 이를 믿는다면,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오실 것이라고 한다. 이는 타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메시지이다”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 “선거 후 믿음 더욱 강해져”

## 힐러리 클린턴의 기독교 신앙

미국 민주당 소속 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애틀랜틱(The Atlantic)이 8일 보도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오랫동안 신뢰해 왔던 빌 실래디(Bill Shillady) 목사에 따르면 “성경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과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경험을 감안할 때 그녀는 위대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마 신학교에 가지는 않을 것이며 감리교회에서 평신도 설교자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클린턴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실래디 목사는 “그녀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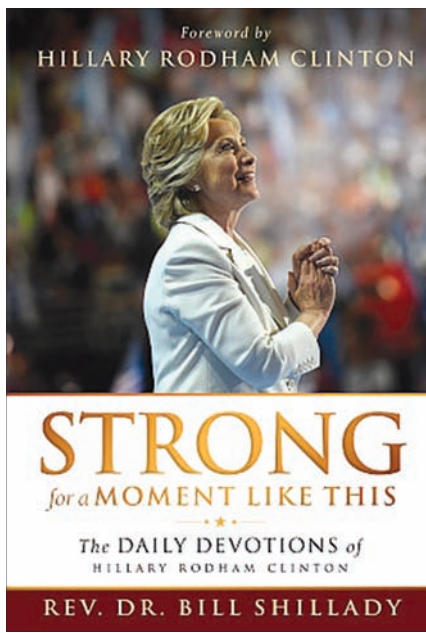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은 선거 이후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뉴스위크지 편집인 케네스 우드워드(Kenneth Woodward)에 따르면 지난 가을, 클린턴 전 후보는 1994년부터 감리교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클린턴은 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 이유는 “대중에게 지나치게 경건해 보일 것 같아서”였다고.

클린턴의 생애를 담은 두 권의 책이 가을에 출판을 앞두고 있다. 하나는 클린턴의 개인적인 회고록을 담은 ‘What Happened’이며, 다른 하나는 뉴욕연합감리교회 대표인 실래디 목사가 클린턴의 제안으로 저술한 신앙서적 ‘Strong for a Moment Like This’이다. 클린턴은 이 책의 서문을 쓰는데 동의했으며 그녀의 보좌관은 미리 사본을 읽고 승인했다.

“Strong for a Moment Like This”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클린턴이 남긴 간증을 담은 신앙서적으로 20개월 동안 빌 실래디 목사와 다른 여러 목회자들로 구성된 영적 지원팀의 여정을 담았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은 일리노이 주의 감리교회에 어릴 때부터 참석했으며 빌 클린턴과 함께 워싱턴 DC의 연합감리교회에 출석했다.

클린턴은 한 때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양측에서 비판받기도 했었다. 진보주의자들은 그녀가 도덕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했고 보수주의자들은 신앙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신앙을 담은 서적 ‘Strong for a moment like this’

이후 그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공개하기를 꺼렸다고 한다.

하지만 클린턴은 올해 1월 녹스빌 체육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렸다.

클린턴은 “나는 신앙의 사람이며 기독교인이고 감리교도이다. 가족과 교회를 통해 받은 지원에 대해 매우 고맙게 여긴다. 나는 기독교인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성경 공부, 신앙인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당신의 모든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게 됐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것”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을 영적으로 지원했던 빌 실래디 목사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보낸 이메일이 CNN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일요일이 오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메일에서 빌 실래디 목사는 “1세기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 금요일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날이다. 우리 모두는 금요일을 가진다. 그러나 속담에서 말하듯 ‘일요일이 오고 있다’”고 힐러리를 위로했다.

이미경 기자

**김인식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가 되어 3300 세계전용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8: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LA채플리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5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83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 O.C./얼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더듬남)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년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열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정동석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민경엽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아)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박재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om

**허규담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 F. (714) 308-7308 / us8291@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6: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분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민승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고현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알브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권혁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이동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예뎀터스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박경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글예) 장년부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김인철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7:30 중등부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6: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리스패터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최혁 담임목사**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심리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글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 합병증)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Residents of Pittsburgh gathered in Schenley Plaza following the violent clashes that resulted in Charlottesville on August 12, 2017. (Photo: Mark Dixon / Flickr / CC)

## Christian Leaders Condemn Racism Following Violence in Charlottesville

In the wake of the violence that took place in Charlottesville Saturday, many leaders in the Christian community spoke out against racism, and called on Christians to pray for unity and peace.

Protests led by white supremacist groups, and counter-protests that also took place, led to violent clashes in Charlottesville on Saturday. Later in the day, a car driven by a white nationalist protester rammed into a counter-protesting crowd, killing one and injuring 19.

Many Christian leaders took to social media and news platforms to speak out against the violence. Russell Moore, president of the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wrote a column for the Washington Post in which he strongly denounced white supremacy.

"This sort of ethnic nationalism and racial superiority ought to matter to every Christian, regardless of national, ethnic, or racial back-

ground," stated Moore. "The church should call white supremacy what it is: terrorism, but more than terrorism. White supremacy is Satanism. Even worse, white supremacy is a devil-worship that often pretends it is speaking for God."

"The racism and hate being spewed by the alt-right and white supremacists, that have invaded our state this weekend, is an insult to Christianity and our country," stated Tony Suarez, the vice president of the 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NHCLC) and one of Trump's evangelical advisers.

Many other of Trump's evangelical advisers also spoke out. Jack Graham, pastor of Prestonwood Baptist Church, said he believes "it's important on a day like this that we stand together as a church ... to say in the strongest terms possible that we condemn any sort of racial bigotry, white supremacy, prejudice, and intolerance."

Jemar Tisby, president of the Reformed African American Net-

work, wrote in an opinion piece on the Washington Post that "the church remains instrumental in dismantling the racial caste system in America." Yet, he added, action on the part of white pastors is crucial.

"No one likes to be pressured into speaking about injustice. You want to do it from your own conviction. I get it. I really do," wrote Tisby. "Just know that the time has never been more urgent for white Christians, pastors in particular, to decry white supremacy today."

Tim Keller, former lead pastor of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in NYC, wrote in a blog that racism is a topic that must be addressed regularly.

"Racism should not be only brought up at moments such as we witnessed in Charlottesville this past weekend," Keller wrote. "The evil of racism is a biblical theme -- a sin the gospel reveals and heals -- so we should be teaching about it routinely in the course of regular preaching."

## 'God Gave Me Strength to Overcome'

Rev. Hyeon Soo Lim makes first public statement upon return from detainment in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after two years, six months, and nine days of absence, Rev. Hyeon Soo Lim returned to the pulpit of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Toronto during its Sunday service on August 13. Lim expressed gratitude toward Christians all over the world who had prayed fervently for his release, as well as toward the government leaders in Canada who had gathered their efforts to bring him home.

Though there were concerns about Lim's health, it appeared that his health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His expressions and voice came out with strength, just as they had before.

"I believe that it was not by any human strength, but by God's extraordinary power that I was able to come out," said Lim. "During my detainment, I was faced with panic, fear, and many difficulties, but God gave me the strength to overcome each day's obstacles."

Lim, who was placed in solitary confinement when he was detained, said one of his greatest difficulties included the times that he was in isolation.

"After I wa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it was a war with loneliness," Lim said. "I ate alone 2,757 times, and it was particularly hard worshipping on Sundays on my own."

"It was a long, long time that seemed like it would never come to an end, but I was able to overcome as I spent time with the Lord, and while I was laboring I continued to pray," he continued.

Lim added he read the Bible five times in one year. His Sunday workshops would begin at 7 AM with songs, and end around 8 PM.

As all information was blocked from reaching him, and as he himself was unable to record anything during his detainment, Lim said he focused on praise and Bible memorization.

"As I read the Bible and repeatedly memorized about 700 verses, I was able to organize them into different themes to preach on," said Lim. "Even the difficult times of labor, now that they have passed, turned out to be a time of refinement and repentance out of God's love."

"I discovered a new vision on training young people and young leaders, and awakening churches all over the world ... I don't want to waste the rest of my life, the time I have left. I want to work for God's kingdom and his mission."

Lim had been detained when he last visited North Korea in 2015. According to family members, he had visited the country more than 100 times.

## Asian American Students in Foster Care Receive New Backpacks and Supplies for School

Annual campaign brings together 300 new sets of backpacks and supplies

Thanks to the contributions and love from the community, 300 students have received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his fall, a Los Angeles non-profit announced on August 9.

The backpacks, containing the new school supplies, were delivered to students in foster care — specifically, those under the care of the Asian Pacific Project within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DCFS) — on Wednesday morn-

ing by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KFAM hosted its annual campaign, called 'Backpacks of Love,' during the month of July to gather new school supplies and backpacks for students in foster care.

Among those who contributed included Good Stewards Church, located in West Covina, which purchased 10 backpacks and sets of school supplies and donated them to KFAM.

"We are grateful for the mem-

bers of the Korean community who have shown a huge interest in this fourth annual event," said Connie Chung Joe, the executive director of KFAM.

Though the majority of the backpacks were delivered to the Asian American students in the Asian Pacific Project (APP), students who are hard of hearing and students of Native American descent, whose departments share the same building as the APP, were also able to receive backpacks.



KFAM staff, volunteers, and children from the community helped put together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 deliver to children in the foster care system. (Photo: KFAM)

"This year's campaign was made possible by the support of Hanmi Bank and other Korean businesses, including restaurants and pharmacies, who have participated in and supported this campaign since its launch in 2014," said Chung Joe. "We look forward to seeing the

students have an exciting start to the new school year."

KFAM, based in Los Angeles, also provides other community services including counseling and awareness seminars on topics such as mental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리스장 의사 일까요?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 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정례는 현상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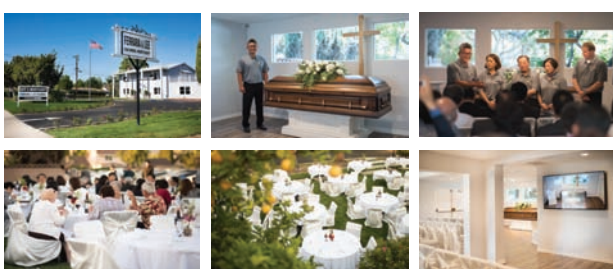
## 리스장 의사

더 가까이에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966년부터 고객들을 모셔온 리스장 의사 1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넓은 파킹로와 리뉴얼 된 쾌적한 채플 비디오 모니터를 비롯한 최신 시스템, 편리한 캐더링 서비스와 아름다운 가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리스장 의사 뿐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계신다면, 리스장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리스장 의사에서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장례서비스 / 장례보험 카운셀러를 모십니다  
문의 (310)984-0888 / rchoi@leesmortuary.com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리스장 의사  
Lee's Mortuary FD1164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missionchurch.org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Four Things to Make Work Meaningful as a Christian

BY ROBBY JUNG

Going to church faithfully and serving with joy in a ministry after a crummy week is hard. Going to work the next day with all of that still on your mind is even harder. Then the weekend comes and goes, and it's that same cycle again...and again...and again. And it never changes.

I've been doing it for 15 years, and it has not changed. Not one bit!

But along the way, I've learned some lessons that have helped me make sense of my purpose in this otherwise purposeless cycle. Here are 4 things that you can do to work with purpose and identity.

**1. Come from a position of humility.** I can't tell you how many times I've met a Christian worker who just knows that he or she is God's gift to the company. "David Disciple" and "Christina Christian" know how to do things better than the other 25 people on their work teams. But when has anyone ever listened to you because you told them you were better than them? Instead, assume that everyone is better than you, and then trust them.

In the meantime, work on your craft. Be better in a week than you are today. If you're a teacher (like I was), sharpen your pedagogy. If you're a businessman, increase your sales this year compared to last. Over time, you will find that you are going to be the best version of you. And you are going to be trusted because you've built relationships along the way.

And here's where we find our purpose: People around you will start asking you questions. How did you do that? Why are you so stress-free?

And then you answer them: I can do what I do because I don't think I deserve a single thing that I have. This is the fruit of humility.

**2. Answer questions honestly.**

After Jimmy was discovered dealing narcotics at our school, I chose not to expel him.

Puzzled by this, he asked me: "Mr. Jung, I don't get it. Why are you giving me this chance?"

Here's what I said: Well, you're definitely still in trouble and are going to be suspended. But we're going to keep you here. We're going to work with law enforcement so that you can redeem your criminal record. I'm going to be there every step of the way help you become a successful young man. We're going to do all of this not because you deserve it - you don't. You're getting this break because I've gotten this break. And, when it comes time, you're going to give this break to others, too.

In moments like these, something beautiful happens. People begin to probe and ask questions.

I now have opportunities to answer the big "why," in a place other than church. These are open invitations to speak about how the Gospel has transformed my life - "why I do what I do," "why I believe what I believe," and "why I love the people standing in front of me".

And all of a sudden, my purpose in my career is clear - to love others as Christ loved me, and I can do it by answering their questions honestly.

**3. Reflect - a lot.** If you're humble, then you're a learner. If you're a learner, you need to find space to process. I do this during my commute, about about an hour and fifteen minutes each way.

Reflect: First, I summarize and recount my day. I reflect on moments I am thankful for. I reflect on moments when I could have done better. I reflect on how I treated people - those under and above me.

Process: Then I begin processing - I pray (with my eyes open, of course!).

I pray for what I'm grateful for. Moments of hurt. A coworker who needs to meet Jesus. A student who is grieving. A homeless family.

The act of reflecting and processing is the act of reviewing your day with God's eyes, hands, and heart. You realize that you fall short, but you grow from this daily experience. This leads to some of the most genuine prayers with God.

**4. Reconsider your expectation of what church on Sunday is and**

is not.

I used to think church was there so we could serve it. But it's not. The church is there to equip us to serve others.

The church doesn't need your amazing guitar chops. She doesn't need your astute Bible mind. She doesn't need your ability to work with children.

Instead, the church wants you to be equipped so you can serve others on the days that you are not at church!

Think about it - you heard a great sermon. You engage corporately in worship. You tithe. You connect with others. All on Sunday. All at church.

To what end? So that you can pull yourself out of your sad, weekly pity party? No!

The church gives you wisdom, inspires you to more like Christ, to give of yourself in a multitude of ways, and calls you to action.

So go act! Live out what you get from church. If the message is about forgiveness, then start thinking about and acting on the people you need to forgive in the workplace or in your campus ministry. If the time of worship led you to pray more deeply, then pray more deeply not just on Sunday but through the week.

You'll see change. You will seize moments of ministry in places other than church. And you will find meaning in your career that is self-less, God-honoring, and Jesus-imitating. And at the very least, people around you will begin to ask you questions that you can answer honestly.

And that mundane cycle will finally be broken and your work will have meaning (again!).

*Robby is married to his best friend, Grace. They have two amazing boys (Jeremiah and Joshua). Robby is a High School Assistant Principal and Elder / Worship Director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Ten Pieces of Advice Pastors Have Trouble Receiving

BY THOM RAINER

The last thing pastors need is someone to offer them advice.

I know. They receive "advice" every day of the week. Some of it is well intended. Some of it is not. All of it cumulatively is overwhelming.

It is thus difficult for me to pile on. But I do want pastors to hear those pieces of advice that are really difficult to heed. And they are difficult even if pastors know they are true.

**1. Love your members unconditionally.** All of your members. Even that deacon who told you that you had no business being in ministry. Even that ministry director who told you God told her it's time for you to leave. We are to love as Christ loves us. Unconditionally.

**2. Don't focus on your critics.** This one is challenging. They are the constant ringing in our ears. They are squeaky wheels. Enough of the metaphors. It's hard not to jump when a critic barks.

**3. Make the tough personnel de-**

isions sooner than later. It won't get any better. It won't get any easier.

**4. Accept that you won't be loved by everyone.** I've gotten to the point in my life that I'm okay with a simple majority. I'm just not sure I have it!

**5. Put those things on your calendar that you often neglec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Family. Devotional time. Gospel conversations. Don't neglect the best for the good.

**6. Accept the lows of ministry as normal.** If you haven't been attacked by critics, you probably aren't leading. If you haven't been torn up by a family tragedy, you need a heart transplant. You will have lows. It's a part of ministry. It's a part of life.

**7. Don't compare your church to others.** Your church is not that other church. Bigger is not better. Newer is not cooler. God has you at your church at this time for a reason. Find joy in that reality.

**8. Learn to be content.** That green grass is someone else's brown grass. Unless God clearly, very clearly, calls other-

wise, be content where He has placed you in ministry. Even be excited about it.

**9. Learn to rejoice always.** It's healthy. It's biblical. Philippians 4:4: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I'm glad the translator added the exclamation point.

**10. Have fun.** Life is too short to stay in the doldrums and focus on the negative. Our ministries are a brief but incredible time to make an eternal difference. Love it all. Have fun. Learn to smile.


By the way, you who serve the churches are my heroes. I hope you know how much I appreciate you, admire you, and pray for you.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August 7,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Thom.S.Rainer.*

**설교자를 위한 필독서!**

# 설교를 위한 **생생**하고도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라




한국인 최초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호성교회 박영재 목사의 위로의 선물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없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깨달고 울고 감동하며 위로**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책!  
**상처난 내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책!**

가수 EXID의 솔지, "책을 읽는 시간 내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진주로 바꿀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초등학교 이석훈 교사,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일신여중 김중서 교사, "영혼이 맑아졌어요."  
경인교대 김재은 교사,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금천교대 김진홍 목사,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주부 진선미 씨, "책이 쉽고 재미있어 단숨에 읽었어요"  
고3 한수림, "지쳐 있었던 게게 이 책은 생명이요 같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영재 지음 / 356면 / 15,000원

## 추격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았던 필자는 자신의 궁금증이 '성경의 전체 주제와 상관없는 호기심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가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궁금증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목사들이 일도 좋고 평신도가 일도 좋을 만큼 논리적으로 잘 쓴 책"** 현 평양제철노회장, 칼빈신학대 교수 서문강

신현아 지음 / 40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cool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747-1004 



# State Assembly in India Passes Anti-Conversion Law

A state government in India has passed a contentious bill forbidding the coercion of religious conversion, a bill which some say can be abused to harass religious minority groups.

The bill, known as the 'Freedom of Religion Bill 2017,' was passed by the Jharkhand Assembly on Saturday, and now will be sent to the governor for approval.

Section 3 of the bill forbids the attempt to convert anyone "by use of force or by allurement or by any fraudulent means." Those who violate the bill could be required to pay a fine of 50,000 Rupees, be imprisoned for three years, or both. Minors, women, or people from the Scheduled Caste or Scheduled Tribe could be required to pay a fine of up to 10,000 Rupees, be imprisoned for four years, or both.

Those who voluntarily wish to convert must first receive permission from the deputy commissioner, who would then investigate what the circumstances were surrounding the conversion, according to The Telegraph.

Six other states in India have similar law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a human rights group focusing on religious persecution. However, a lack of clarity on the definition of certain terms in the laws, such as "coercion" or "force" has led radical Hindu groups to abuse the laws against non-Hindu groups including Christians, the ICC said.

"Often, these laws provide an easy excuse for radicals to attack Christian leaders with impunity," said William Stark, the regional manager for the ICC. "One simply needs to claim the pastor was forcefully converting an in-



A map of Jharkhand state in India. The portion in red marks Ranchi District, in which the Jharkhand Legislative Assembly is located. (Photo: Joy1963 / Wikimedia / CC)

dividual following an assault. As a result, instead of the pastor's assailants being arrested, it's the assailed pastor who is arrested by police following an attack."

"With attacks on Christians skyrocketing, the adoption of a law that would only incite more violence seems to be another step away from India enforcing religious freedom for all," Stark said.

Stephen Marandi, the senior MLA of the Jharkhand Mukti Morcha (JMM) party, described the bill as being "fraught with problems," and argued that the constitution already protects religious freedom, and questioned whether the bill was necessary, the Indian Express reported. The bill can be "misused to harass people," Marandi added.

Meanwhile, those who support the bill argue that people in poverty have been taken advantage of and forced to convert, and that the bill is a measure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We haven't banned wishful religious conversions. It only aims to tighten the noose round the neck of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who are taking advantages of ignorance and poverty of poor people, mainly tribals and dalits living in remote areas," Raghubar Das, the chief minister, told The Telegraph.

Opponents such as JMM Executive President Hemant Soren argued: "The way the bill has been advertised is wrong."

"I have studied in a missionary-run school ... why did I not change my religion?" Soren was quoted as saying by Gulf News.

# Majority of Americans Believe They Are Sinners

According to new research released on Tuesday, a significant majority of Americans believe they're sinners.

The LifeWay Research study found that more than two-thirds of Americans (67 percent) believe so.

But in terms of how they feel about that, or what they would do about it, differed.

The largest proportion of those who think of themselves as sinners said they "work on being less of one" (34 percent).

The next largest group — a little more than a quarter of survey participants — said they "depend on Jesus Christ to overcome" being a sinner (28 percent).

Five percent of survey respondents said they are sinners, but they "are fine with that."

Meanwhile, though about eight per-

cent said they do not believe they are sinners, some said they do not believe sin does not exist at all (10 percent). Fifteen percent preferred not to respond to the question.

One interesting finding of the survey is that there were some who identified as non-religious or not evangelical, yet still responded, "I am a sinner, and I depend on Jesus Christ to overcome that."

In fact, almost one in five (19 percent) of those without evangelical beliefs agreed with that statement, and six percent of non-religious individuals did so as well.

"To some Americans, saying you're a sinner is a way of admitting you are not perfect,"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To those folks, it doesn't necessarily mean you're evil or should be punished for

your sin. That's something the church should pay attention to."

Other findings from the study included:

Those who did not affiliate themselves with any religion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sin does not exist (32 percent). Yet, 27 percent of them said they are working on becoming less of a sinner."

Catholics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they are working on overcoming their sin than Protestant Christians (48 percent and 31 percent, respectively). However, Catholics were less likely than Protestants to say that they depend on Jesus to overcome sin (19 percent and 49 percent, respectively).

Respondents who were between 25 to 34 years of age were most likely to say they were "fine" with being sinners (12 percent).

## Dear Reader,

We at Christianity Daily have been tremendously grateful for your support and readership of the English edition of our newspaper, which was launched online in 2014 and in print in 2015.

Though our dedication towards the English-speaking commu-

nity within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and ministries remains, we will no longer be printing articles in English on our weekly newspapers.

Our goal is to focus our energies and resources in keeping our online presence as vibrant and up-to-date

as possible with news about the local church, as well as the world around us. We would appreciate any support we can receive to reach that goal.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We look forward to the new opportunities this transition will brin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ANC 세미나 공식 후원업체

# GSI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무료 설치"

## GSI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블랙박스과 함께 안심 운전하세요

**1**

**Aitz SMVB-6100**

- 컴팩트 실속형 (주차감시 모드 시 전/후방 모션 감지 및 충격감지를 동시에 지원)

**\$150 전.후방**  
**\$190 전.후방**

**2**

**Aitz ROAD**

- 3.5인치 터치스크린
- 포맷프리, 고온 차단 기능
- 128GB까지 인식

**\$220 전.후방**

**3**

**Aitz ALPHA**

- 4.0인치 FHD 의 터치스크린
- 첨단 안전운전자원 시스템(ADAS) 탑재
- 포맷프리
-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적의 탑재위치

**\$320 전.후방**

**4**

**Aitz RC-100**

- 후진기어시 자동으로 주차영상을 보여주는 콤보형
- 4.0인치 터치스크린

**\$320 전.후방**

**5**

**eCell e-FOCUS**

- 본체 분리 2채널 초소형 카메라
- 스마트폰 연동기능 (모바일 앱 통해 녹화영상, 실시간영상, 총격영상 확인가능)
- 포맷프리
- 앱 무료설치 및 업데이트
- 스트리트 파킹도 안심하세요

**\$320 전.후방**

\* 그외 상업용 차량 및 모터 사이클용 블랙박스 판매

전시 및 Warehouse  
**GSI Systems, Inc.**  
860 E. La Habra Blvd, #220A  
La Habra, CA 90631

**GSI 블랙박스 판매/설치 연락처**  
**LA & OC : T (408)966-8595, (714)349-8131**  
GSI SYSTEMS INC. - DASHBOARD CAMERA COMPANY  
유럽차 (Benz, BMW, Audi 및 특수차량은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upon**

기독교 목회자들만을 위한 혜택!

이 쿠폰을 지참하신 분들에게는  
Micro SD Card 32GB 무료 증정



ACADEMIC YEAR 2017~2018년도



# 온누리 장학생 모집공고

신청기간: 6월 1일~10월 1일 제출마감: 10월 1일  
신청접수 e-mail: ancsfug@gmail.com

### 자격 및 장학금 종류

1. Korean American Christian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학업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2.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 2year Junior College Scholarship
  - 4year College/University Scholarship
  - Graduate School Scholarship
3. 해외 한인선교사 자녀 장학금  
선교사 자녀로서 미국내 대학교 학업 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ancsfug@gmail.com을 통해 신청서를 요청하시면, 자격사항 및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유의사항

1. online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 또는 미비된 신청서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ANC 온누리 장학금은 수혜자의 특권이지 신청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어떠한 이익제기도 수용되지 않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 818.834.7000 / www.anconnuri.com

## 영접하기 곧 예수 이름을 믿기

얼마 전에 만난 친구 목회자가 학위논문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에 관한 논문이나 물으니, “사영리 구원의 문제점”에 관한 글이라 하였습니다. 친구는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별반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사영리를 이용하여 몇 분 동안에 얻은 가벼운 믿음, 곧 경신(輕信)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우리나라의 1970년대는 사영리(四靈理)라는 작은 소책자를 사용하여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교육에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소책자를 사용하였고, 한국대학생선교회(CCC)라는 단체는 구원을 점검하는 데, 신앙의 문턱을 넘어가는 도구로 오랜 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이 책자 마지막에 믿음을 선택하는 기도문을 읽으며 결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즈음에는 “영접하는 것 곧 예수 이름 믿는 것”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다시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소위 “거룩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행동하기 때문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물어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영접”(receive)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취하다, 잡다, 붙들다”라는 의미의 “람바노”(lambano)라는 동사와 또한 “인정하다, 좋아하다, 친밀하게 되다, 교제하다”라는 의미의 “파라람바노”(paralambano)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들며, 교제하고, 인정하며, 좋아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여 구원 얻음을 그림언어로 표현하면 첫째,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 방주를 신뢰하여 그 배에 타는 것입니다. 차가운 밤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불타며 가라앉는 배와 구원의 방주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지는 명확한 일입니다.

새로운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방주에 이룬 사람이 선장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고마워서라도 왕을 섬기거나, 선장을 도우며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중대한 결단입니다. 거기에는 행동의 열매가 따릅니다. 믿음과 영접은 반드시 행동이나 실천을 낳습니다.

## 사랑은 메타포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비입니다.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를 믿었다가, 머리가 큰 후는 믿지 않다가, 성숙한 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드라마 속의 사랑을 믿었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다가, 어느 날 훔치고 찾아온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없던 유치한 유행가 가사들이 전부 다 자기 얘기를 노래하는 것 같으면 사랑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운동당신뿐이고,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온 세상은 사라집니다”같은 시에도 눈물이 글썽거리다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광수의 장편 소설 ‘무정’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 추운 밤, 시베리아 별관에서 공허하게 떠 있는 반달을 바라보며 “찢어진 반달아~” 외치며 울었던 주인공과 함께 정하는 동감을 주체할 수 없어 이 표현을 따로 적어 놓습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주인공이 잔을 들고 “당신의 눈동자를 위하여” 건배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외칠 날도 있지 않을까 대사를 되뇌어 왔는데, 사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으로 바로 캐스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오면 세상이 변합니다. 늘 출근하는 길에 피어있는 들꽃도 푸른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까지도 이전에 보던 것이 아닙니다. 몽땅 다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변한 것입니다. 내 눈에 사랑이라고 부르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본 것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 하며 나에게 찾아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끊이지 않는 축복의 한 주



김성민 목사  
펠리세이드교회

시고 축복해 주신 일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주가 축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글로 다 적을 수 없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축복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을 잘 만나고, 이웃을 잘 만나며, 교회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오 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변함없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힘을 잃지 말고 생활하고 사역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오래 전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생각난다. 나의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또 다시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불평과 불만으로 보내왔던가 후회도 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지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성경은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에베소서 2장 4-5절)고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깨우치신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얼굴을 붉히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실은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러한 사랑을 벌써 받았다.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 보며 살 때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낙심과 절망 그리고 우울할 시간은 없어지는 것이다. 감사와 찬양만 그 입술에 담게 되기 때문이다.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생명수 한의원

Living Water Acupuncture

### 전문 진료 과목

한방 신경정신과

불면, 불안(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회병

과잉행동장애(ADHD)

조현병(정신분열증)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잠들 같이 내가 법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서 1장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배상석 원장  
Joshua Bae L.Ac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졸업  
한방 임상 30년  
동지침법 창안자

Tel. 714-761-5454

520 N. Brookhurst St. #208, Anaheim, CA 92801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니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한 주였지만 또 다시 돌아보니 전부 다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강을 조심하라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신 집사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의 90세가 되시는 아버지, 예배 후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수고했다고 하는 나보다 키가 큰 막내아들, 배고프지 않느냐고 전화해 주고 사무실까지 음식을 배달해준 나의 아내, 저녁 식사를 사주며 몸무게를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걱정해 주신 형제님, 점심을 사주셨다며 바쁜 가운데 40분 거리를 오셨던 오랜 친구,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고 싶다고 하던 먼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 한국보다도 먼 곳을 여행하던 중 내 생각을 했다고 하며 전화해 준 집사님, 거의 일 년 만에 별일 없냐고 하며 전화해 준 한국의 어느 목사님,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나에게 인사해 준 저 앞집의 이웃, 늘 기도한다고 메시지를 보내 주신 다른 주에 사시는 권사님, 눈꺼풀이 무거운데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참석해 준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가 오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야기 끝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



# 구령의 산고

## 마태복음 27:45-5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체험과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 산 죄값으로 그 귀하신 예수님을 엄청난 고통과 피로 돌아가지게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남은 평생은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고 스스로 성령의 감동 어린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감적인 신앙체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은혜 받았다고는 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보답하며 살려는 태도보다는 평생을 두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착각하고 자기 입장을 앞세워 현실적으로 세상 조건과 죄악에 휩쓸리는 패턴도 있어서 양떼에겐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고 그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적받고 반성하며 회개, 각성하여 바른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혀 달리신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씌운 가시관에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하는 뜻으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로 죽기 싫어 불평하는 말로 호소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왜 그토록 처참한 형벌을 받으며 죽으셔야 했던가를 바로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스럽도록 버림받아 죽어갔는지를 바로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정확한 대답을 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내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해산하기 위하여 치르신 대속의 희생이요, 고난이며, 산고였습니다' 하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성도의 자격이 서둘러질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몰라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구원얻으라고 기록하신 특별계시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정확한 신앙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 해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이제껏 예수님이 구령의 산고, 즉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치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정된 의미라고 확실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견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히 후회할 수 밖에 없는 불행할 접하게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당하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 "주여, 내가 알고 믿사오니 내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해 주시느라고 당하신 산고가 아니었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51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잘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두칸으로 되어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혀 만든 껍질이 법궤입니다. 그 껍 안은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만사를 넣은 순금을 입힌 돌항아리, 아론의 락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신 법통(法統)의 하나님이고 만사가 담겨있는 항아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 왔던 그 락난 지팡이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만들어진 성소의 모형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출입하는 성소가 있고 그 중간에 휘장이 막혀 있었는데,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은 높이가 50규빗이나 되어 이 휘장을 찢고자 하면 아래쪽을 조금 잘라 양쪽으로 사람들이 잡고 당겨야 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명이 이루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아 둘 필요가 없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16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 외에 또 다른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보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자던 성도들의 몸은 무덤 안에 잠든 것처럼 묻혀 있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심과 동시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사흘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걸어 나와 비로소 거룩한 성(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에스겔 37:1-37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 대군을 이루는 엄청난 부활의 역사도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부활소망을 일깨워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부패하여 썩는 냄새까지 났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하시자 시체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된다는 계산으로 유대교의 종교지도자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시 허락받은 인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기대하는 궁극적 소망이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의 진수(眞髓)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리들에게 부활의 실질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셔서 나사로 부활의 표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되살아났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곧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신 증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0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사로가 예수님 보다 먼저 부활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먼저 부활한 듯 생각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부활일뿐 영구한 부활의 주인공으로 는 예수님이 첫 열매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해산하시느라 치르신 예수님의 고통이 구령의 산고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19-21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독백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예수님께 기대 걸고 따르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애통하며 통곡하겠지만 마귀 앞잡이로 세상에 속한 무리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자녀 되게 하기 위해 치르신 해산의 고통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치 아니하느니라"(요16:21)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말 오후 10시30분	주말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사과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 의사 Zo'e 조애**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로 예약 필수)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 캐러대 안암병원내 샐 **입점**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SELLA CARE M3 HERBAL BASE  
 SELLA CARE VC 2000 VITAMIN A VITAMIN B6 PREMIUM VITAMIN C  
 SELLA CARE GOLDEN WATER LECTHIN Biotin & Selenium  
 SELLA CARE MEGA VITAMIN D CAL-MAG-ZINC CHOLINE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셀라케어

산성	중성	알카리성
3.5	6.0 7.0 8.5 9.0 9.5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신간 도서

예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재경 | 곰도와니 그림 | 세움북스 | 183쪽

글이 매우 간명하고 명쾌한데, 곰도와니의 삽화까지 첨가돼 독자에게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다. 엄숙한 예배 분위기가 아닌, 텔레비전 토크쇼를 보는 듯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예배에 참여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할 수 있기에 충분한 매우 유익한 책이다. 1부는 '예배와 목사', 2부는 '예배 환경', 3부는 '예배 순서', 4부는 '말씀', 5부는 '성례'로 구성돼 있다.



엄마의 기억은 어디로 갔을까

낸시 에이버리 데포 | 한국경제신문 | 264쪽

알츠하이머병(치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는 동시에,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생긴 오해와 여러 위험한 순간들을 전해 준다.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의 인간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저자는 병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진실된 조언을 건넨다. 병과 죽음 등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 아이를 위한 지저스 콜링

사라 영 | 생명의말씀사 | 30쪽

사라 영의 스테디셀러 <지저스 콜링>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축약해 다시 만들었다. 짧은 성경구절과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양중맛고 밝은 색깔의 그림과 함께 담아, 예수님을 친밀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짧은 묵상글과 성경구절을 보여주면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관련 성경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이야기를 덧붙여가며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다. 자녀는 물론 자신도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추천한다.



추천 도서

한 분 예수님의 전기인 복음서 왜 하나 아닌 네 개나 필요한가?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주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 이야기는 때로는 내용이 서로 겹치고, 때로는 어긋나는 것 같다. 이런 책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되었는지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기원후 30년경 예수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180년경에 이레니우스는 '넷'이라는 수의 장엄함과 강력한 특성을 언급하면서, 복음서는 사복음서 이상도 이하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예수 전승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수집돼 전달됐으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 사이 연속성은 무엇이고 불연속성은 무엇일까? 이 둘 사이 많은 것들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지는 않았을까? 불트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어 연속성은 불가능하고, 예수의 실제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일까?

그 외에도 초기 교회가 단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왜 네 개의 복음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사회적·역사적·문학적·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복음서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종류의 문헌이며 누구를 위해 기록됐으며 어떻게 전파됐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복음서의 양식은 이야기의 성격을 결정하기에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

또 신약성경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복음서의 위치는 정경적 의미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형성됐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펼쳐지는 구원의 진리이다. 즉 모세오경이 구약을 여는 열쇠인 것처럼, 복음서 역시 신약을 여는 아이콘이다.

우선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장 '서론: 예수에서 복음서로'는 예수님 당시 복음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시대적 상황과 구약의 배경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짐을 소개한다. 2장 '예수 전승의 목적 및 보존'에서는 예수 전승이 초기 교회의 신앙을 위해 전승된다고 한다.



주 예수의 복음 마이클 F. 버드 | 신지철 역 새물결플러스 | 684쪽

각기 스승으로서, 영웅으로서, 운동의 창시자로서, 목격자들에 의해 비망록 등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된다.

3장 '예수 전승의 형성 과정'에서는 베일리의 '비공식적으로 통제된 구전'과 스칸디나비아 학자들이 제시하는 '랍비 교육 방법'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보완하여 제임스 던의 '사회적 기억 이론'을 기초로 한 설득력 있는 예수 전승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즉 개인의 기억은 변형되고 왜곡돼 신뢰할 수 없지만, 사회적 기억은 이런 것들을 통합하여 바른 인식을 도와줘 예수에 대한 바른 상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다.

4장 '복음서의 문학적 유전학'에서는 복음서 사이에 관계를 추적하고 밝히는 부분이다. 복음서는 서로 연관돼 있기에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거의 확실한 것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저술했다는 것이고, 누가와 마태가 마가복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단순히 공관복음에 의존하거나 독립적이라 말할 수 없으며, 저자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조와 장르를 작성했다.

5장 '복음서의 장르 및 목표'에서는 장르가 이야기와 내용을 전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음서가 어떤 장르인지 추적하고 복음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서가 새로운 문학 양식이고 그 자체로 독특하며 유일한 기독교 문학의 유형이라고 알려진 것에 비해, 저자는 유대교 문학과 당대의 문학을 비교하며 복음서의 장르와 목적을 설득력 있게 풀어간다.

6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증복음'에서는 초기 교회가 어떻게 사복음서를 채택하게 됐는지 여러 교부들의 주장과 글들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당시 사복음서가 광범위하게 널리 읽혀지고 유통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시대에 널리 알려진 예수 전승과 교회의 주인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복음서는 점차 존경받게 되는데, 가장 사도와 연관성이 있고 예수의 초상화를 보여주며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 책은 복음서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다룬다. 또 사복음서가 형성되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 환경들을 다루고 있기에,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저자의 장점은 이런 아카데미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에서 '믿음에 기초한 비평(believing criticism)'이라는 것으로, 기존 비평의 한계를 극복하여 원 의미에 다가가도록 인도한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로 예수 전승의 다양한 의미를 보여준다. 우리는 예수 전승을 단순히 말로만 전달됐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자는 여러 학자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 즉 이것은 오직 언어만으로 다른 이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실천 및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도 전달됐고, 그 방식은 공동식사, 세례의식, 치유, 기도, 세족식, 축기, 예수의 행동 모방 등 다양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전승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기억 안에서의 예수'라는 모델의 발견이다. 예수님의 기억은 결코 진공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사회적 배경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것을 검증해줄 집단이 요청된다. 그래서 기억은 사회적 마음으로 지지되기도, 공동체를 통해 분류되고 공유되며 퍼져나간다. 예수 전승 역시 사회적 기억 안에서 공동의 기억으로 보존되고 전달된다. 결론으로 사복음서는 신약의 아이콘이고, 저자의 표현대로 신약의 리허설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이 걸어간 길을 뒤따라 간다.

방영민 목사(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아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매했: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GRAND OPEN

주님미디어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2017 NEW DESIGN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붓글씨로 제작된 다양한 말씀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방용, 선물용 말씀책자)



교회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 2017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해외투어 in Los Angeles & Orange County



김은호 목사  
오룬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하 목사  
다니엘기도회 팀장

진정한 교회 연합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대상** 목회자, 사모, 선교사

**등록비** 무료

**일시** 2017.8.28.(월)

강의자료, 간증집, 찬양CD,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방법 및 문의

☒ - 인터넷등록 [www.danielprayer.org](http://www.danielprayer.org)

☎ - 전화등록

**미국현지등록** 310 / 404 - 6219 (남가주한인목사회)  
(Email: jk0612444@hotmail.com)

**한국(컨퍼런스 본부)** 82-2-6413-4922~4924

TALK - 카카오톡 등록

카카오톡 친구검색창에서 다니엘기도회를 검색하신 후  
친구추가 하시고 참여 등록 하시면 됩니다.

### ➤ '다니엘기도회'란? ([www.danielprayer.org](http://www.danielprayer.org))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회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각 교회의 현장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현재 7,500여 개 교회 참여)

### ➤ '꿈이있는미래'란? ([www.coommi.org](http://www.coommi.org))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크리스천교육기관입니다.  
(현재 1,600여 개 교회 참여)

### 당일 일정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카운티(OC)
1부 등록 및 찬양	10:00~10:20	16:00~16:20
2부 목회 나눔의 시간 -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	10:20~12:00	16:20~18:00
3부 식사 및 사역박람회	12:00~13:00	18:00~19:00
4부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사역 소개	13:00~14:30	19:00~20:30
5부 한국교회와 LA한인교회를 위한 기도회	14:30~15:00	20:30~21:00

### 로스앤젤레스(LA)

**시간** 10:00~15:00  
**장소** Garden Suite Hote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연락처** 213-383-0000

### 오렌지카운티(OC)

**시간** 16:00~21:00  
**장소** 나침반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연락처** 562-691-0691